



# 가족계획 소식

— 요원을 위한 —  
1974년 6월 15일 <제1호>

<月刊>

발행인 흥국  
편집인 관화영  
인쇄인 밤

발행소  
가족계획 연구원  
서울 서대문구 늑대동 115  
(우편번호 120-02)  
Tel 088003~7

1974. 5. 31. 등록  
번호 1793호

## 1974년은 세계 인구의 해

1974



World Population Year

지구(地球)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이고 그 속에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간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세계적 문제는 바로 인구 초과잉(超過剩)이며 이는 결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현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인 인구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

유엔은 1970년 12월에 열린 제25차 총회에서 1974년을 「세계인구의 해」로 결정,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이해와 인식도를 높이고, 여론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인구위원회」는 ①인구에 관한 모든 자료의 질적 향상, ②각국 정부, 민간단체 및

학술기관들의 철저한 인구문제인식 촉구, ③인구, 가정생활 및 생식생리에 관한 효과적이고 철저한 교육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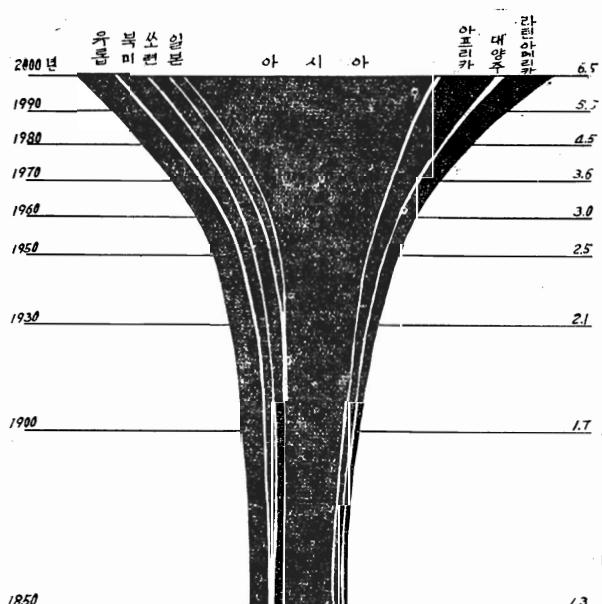
정했다.

「유엔인구사업기금(UNFPA)」 후원(後援) 아래 수행되는 「세계인구의 해」를 위한 사업은 인구자료의 조사·연구, 각종 회의 및 세미나, 훈련 및 교육 홍보 활동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누된다.

이 사업 계획 가운데 가장 크고 특기할 만한 것은 오는 8월 19일부터 30일 까지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사상 최초로 각국 정부 고위 당국자(高位當局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

는 「제3차 세계인구회의」와 「국제통계연구소(ISI)」 주최로 금년부터 실시될 범세계적 규모의 「세계 출산력조사」이다. 이 밖에도 약 20여 개의 각종 회의가 「세계인구의 해」와 관련된 주제(主題)를 가지고 금년 중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세계인구의 해」를 공표(公表)하면서,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제3차 세계인구회의」를 비롯한 각종 「세계인구의 해」 행사를 통해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하루 빨리 취해지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 세계인구....과거·현재·미래

시, ④각국의 국가발전계획에 인구 조절정책 반영, ⑤국가 단위의 모든 인구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의 증진 등 다섯 가지 목적을 설

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가 널리 파악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하루 빨리 취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장간에 즐음하여

<가족계획연구원장> 홍종관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원 여러분!

여러분은 직접 일선에서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면서 가족계획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몽 선전하고 대상자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들을 설득하여 시술의사(施術醫師)에게로 안내하며 그 사후관리(事後管理)까지도 담당해야 하므로 여러분의 역할은 실로 그 누구의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앞날에 많은 어려움이 개재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직책은 더욱 어렵고 무겁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활동여하(如何)는 곧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



의 성과를 좌우  
한다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중책을 스스로 양어  
깨에 메고 실제로 일선에서 어머니들을 만나

가족계획사업을 설명하고 피임기술을 보급하며 주어진 목표량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날로 변천하고 발전하는 가족계획에 관한 국내외 소식, 기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절감

## 실무에 참고—대화의 광장으로 활용을

### 오래 기다렸던 요원의 벗 탄생

현 선 자



새로 탄생된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 소식」  
은 우리 가족계획  
요원 모두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

다. 지금까지 일선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뛰면서 때로는 보람을 느끼다가도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에 봉착해 좌절감을 느끼곤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어딘가에 호소하여 해결책을 지도받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쳤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 일선 요원을 위해 발간되는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 소식」지를 마음

껏 활용하리라 다짐한다. 앞으로 계속 우리들의 허물없는 친구요 안내자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서울 성동구보건소 가족계획지도원>

### 「가족계획 소식」은 사기 양양에 큰 힘

이 정 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지 어언 10년.

내려쬐는 태양아래 막힌 장벽을뚫고 꼭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팔죽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고부랑 길을 지나 시골의 유일한 피서지인 고목아래 노인들의 모임에 나가야 했답니다. 가족계획의 참뜻과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강조하고는 벗발같이 쏟아지는 담뱃대의 항의와 욕설을 뒤로 받으며 우리는 비탈길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계획연구원은 이러한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나머지 금년부터 「아시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을 매월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선을 보이게 된 이 「가족계획소식」의 내용과 체제가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될지 염려되는 바 큅니다만, 다소나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일선에서 사업을 밀고 나가시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항상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 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시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가족계획소식」을 발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귀중한 지원을 해주신 「아시아 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없이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용고집에 안타까워 하며 올던 일도 옛이야기로 변했습니다.



다. 이제는 부락의 부녀자들이 우리를 반가워 맞으며 가족계획 실천에 틀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하고 보람까지 느낍니다. 이에는 정부의 웃음이 컸으며 또한 세계 우호국들의 적극적 협조와 후원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국적인 새마을사업과 경제개발에도 가족계획사업이 그 절대적인 바탕과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이때, 가족계획연구원에서 8. 원들을 위해 유류파동과 물가고의 난관을 무릅쓰고 「가족계획소식」을 발간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요원들에게 실로 의의깊은 일이며 또한 사기 양양에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남 창원군내서면 가족계획지도원>

## 「세계 출산력 조사」에 참여

209지구 18,000가구 대상 실태조사

정부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구의 해」의 주요 사업중에 하나인 「세계출산력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번에 실시될 「한국출산력조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보건사회부 및 가족계획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출산력조사기구」에서 주관하게 된다. 전국 209개 조사구의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약 70

일간에 걸쳐 실시할 이 조사에 대한 세부(細部)계획은 지난 2월 내한(來韓)한 「세계출산력조사본부평가단(인구학자 J. Y. 다케시다 박사와 2인)」과 「한국출산력조사기구」



의 관계자들이 1주일동안 회의를 가진 끝에 확정한 것이다.

유엔이 74년부터 실시 할 「세계출산력조사」계획중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한국출산력조사」는

우리 나라 부인의 출산수준(出產水準)과 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제요인(諸要因)의 파악은 물론 앞으로 실시될 아시아지역 출산력조사사업의 한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표본 선정작업과 조사표 설계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조사표 설계작업은 지난 4월 6일부터 「세계출산력조사 본부」의 다케시다(J. Y. Take shita) 박사가 내한(來韓) 체류하면서 「한국출산력조사」 관계자와 함께 조사표안을 작성중이다. 이안은 앞으로 실시될 시험조사를 통해 오는 6월 20일까지 확정될 것이다.

× × ×

주부(主婦) 클럽연합회는 유엔의 「세계인구의 해」설정(設定)에 따라 74년을 「임신 안하는 해」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백만 주부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한 아이의 출생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의미와 가족계획이 가져오는 가정생활에의 여려가지 유익한 점을 알립으로써 가족계획의 필요성과 신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려는 대중운동(大眾運動)이다.

이는 단순히 「임신 한해 늦추기운동」이 아니라, 사회 각 단체들을 자극하고, 특히 지금까지 방관자의 입장에 있던 남성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가족계획이 곧 책임있는 가정생활의 일면(一面)임을 강조하고, 「물만 넣어 잘 기르기」 정신을 각 가정에 심음으로써 계속적인 「인구증



## 올해는 「임신 안하는 해」

### 주부클럽서 캠페인 활발

가 양재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주부클럽은 이 캠페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생각해 보자—임신의 참뜻”이라는 주제로 제1차 대회를, 지난 3월에 “임신 안하는 해를 전단한다”는 주제로 제2차 대회를 서울에서 각각 가진 바 있고, 제3차 대회

는 지난 6월 2일 낮이 섭에서 20대 부부 150쌍을 초청하고 “현대를 사는 부부의 책임과 이상(理想)”을 주제로 문화방송국(MBC)과 공동 개최했다. 또 지난 1월 온양과 부산에서의 지방대회에 이어, 2월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청소재지에서, 그리고 4월 안양에서 각각 한 차례씩의 지방대회를 가졌으며 지난 5월 23~24 양일에 걸쳐 울산에서 미

혼녀(특히 女工)를 대상으로 대회를 가진 것은 특기(特記) 할 만하다.

그 밖에도 수 차례의 가두 캠페인 실시, 콘돔의 통신보급, 피임기구 판매 마자회 개최, 고바우 그림의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 ×

▲사회=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요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계몽활동을 하시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극복하고 혼자나가 실 때 벽차기도하고 외롭기도 하실 줄 압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계몽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새로운 소식과 끊임없이 개발되는 알찬 지식등 유익한 자료를 엮어 금년부터 매월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저 여러분의 심부름꾼 일 뿐이고 이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셨으니 좋은 말씀 아낌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숙> <김희숙>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셨으니 좋은 말씀 아낌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몽술=일선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 애로사항, 개선할 점 등 뭐든지 기坦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수=우리가 훈련을 받으려 서울에 올라와 보면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아요. 중앙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일선에서 직접 계몽하는 활동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이순자> <이순자> 생각됩니다. 일선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있어서 우리의 실경과 의사 반영이 보다 잘 되었으면 해요. 또 중앙에서는 요원들의 신분보장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지에서 거우 실정을 파악하고 일할 수 있을 만해지면 인사이동이 있곤 하거든요. 정판수술을 받은 사람이 부작용 때문에 시술의원을 다시 찾아가면 시술의사들은 그들을 의민하기가 일쑤예요. 불친절하거나 환자를 상품시 하

## 실정에 맞는 행정지원과 연고지 배치 신분 보장에도 신경을

여 그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사랑과 봉사의식이 결여된 시술의사들의 태도를 볼 때 저희들은 그저 안타깝지만 합니다.

▲민영수=전국 가족계획요원의 3분의 2가 비연고지에서 일하고 있는 정인데, 이 연고지 배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해요. 누구든지 자기고장에 대한 애착은 그 어느 곳에 대한 것보다도 강하기 마련이니까 연고지

에 배치되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보람도 더 느낄 것입니다. 또 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것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밖에도 너무 오래된 계몽용자료는 다시 만들어 주고 각종 보고서 작성간 소화등에도 신경은 써주었으면 해요.

<민영수> <민영수>은 우선 혜정하는 분들을 설득시켜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좀 더 이해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년을 통해 보면 가족계획계몽의 다른 일에 보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허다하죠.

▲김희숙=면사무소에서 보다는 보건지소에서 근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가족계획상담을 하려고 찾아왔다가도 면사무소 밖에서 기웃거리다가는 다른 직원들에게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마한 면안에서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거든요. 다행히 가족계획요원 눈에 띄면 우리가 뛰어나가 다시 모셔들이게 되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 면사무소의 분위기는 가

## 창간 특집 좌담 「요원의 벗」에



족계획상담을 위해 적합하지 않아요.

▲유영희=IUD를 삽입했는데도 신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인공위를 권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술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

## 요원들도 II



대체이 강구해야 것 같아요.

▲강정순=IUD를 입하고 싶어하는 머니들중에서 시술사가 대개 남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많아요. 우리 요원에게 IUD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강정순> <강정순>은 부끄러워서 많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요원에게 IUD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유영희=그래요. 간호원이나 노동들이 시술하면 성과가 더 있을꺼에요.

▲김몽술=현재 비공식적으로 드는 한 요원들이 시술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원 시술시의 고용 등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경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 한국



수=대개 교육수준이 낮은 터에 우리의 입기응변을 동원하면서 계몽상에 큰 문제는 없지 식층의 설득은 저희들의 힘만 카무 벽차요. 이런 교육수준이

## 교育 年1회로 늘렸으면…

체상을 위해서는 매스콤을 통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홍보활용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번 받게되는 교육을 1년에 받을 수 있도록 사하는 것입니 주간이라는 짧은 앤이지만 훈련 고나면 의기소 저희들도 의 땀솟게 돼요.



&lt;김금악&gt;

일을 아무도 몰라 준다고마다가 이렇게 중앙에서 우리를 깨써주시는 걸 알고나니 사명 불타는 것 같아요.

=제호에도 그랬듯이 요원을

일시=1974년 4월 13일

장소=가족계획연구원도서실

### <참석자> (가나다순)

강정순(충북) 김금악(전남)  
김희숙(경남) 민영수(강원)  
유영희(충남) 이순자(경기)  
정애근(충북) 최현수(전북)

도움말: 김봉술 (가족계획연구원)  
사회: 김정임 ( )

위한 「가족계획소식」인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항상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인지, 특히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현수=외국의 가족계획 사업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어떠한 계몽방법을 쓰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겠어요. 요원의 언어, 태도 등 일반적인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서 난도 있었으면 해요. 우수한 요원을 지상에 소개하면 다른 요원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사명감

태도 등 일반적인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서 난도 있었으면 해요. 우수한 요원을 지상에 소개하면 다른 요원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사명감

&lt;최현수&gt;

과 책임감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꺼예요.

▲유영희=정관수술과 복원수술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실어 주세요. 정관수술 받은 후 부작용이 있는 환자를 시술의에게로 안내하기 전에 웨반한 경우라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금악=전에 먹는 피임약이 암을 유발한다고 신문에 났을 때, 어머니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느라고 혼났어요. 피임방법에 따르는 부작용에 관한 협소문에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

건, 방역사업에 필요한 전문의 학상식 등도 가끔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정애근=가족계획방법에 관한 것은 물론이지만 계몽요령 같은 것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어요.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도 계몽요령이 부족해서 어머니들을 설득시키는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유영희=교육 받지 못한 요원이나 교육받은지 오래된 요원을 위해 이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항을 그때 그 때 소개해 주시면 꼭 도움이 될꺼예요.

▲최현수=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웃음) 계몽요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보건지소장등과 같은 분들의 계몽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데도 힘좀 써주세요. (일동웃음)

▲사회=네, 모두들 좋은 말씀들이예요.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의 내용은 가능한 한 교육적인 면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주요시책상의 새로운 정보도 신속히 여러분들께 전달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엮어진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을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직접 우송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동=직접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사회=네, 그렇게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시는군요.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된 것이 안타깝군요. 앞으로 요원을 위한 「가족계획소식」은 여러분의 친절한 안내자료, 진실한 친구로 항상 요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오늘이 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가족계획소식」을 만들어 드리는 데 깊이 참고 하겠습니다.

## 새로운 국내외 전문 지식과 일반 교양 기사를 골고루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가족계획에 성공한 나라로 안겨져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그간 1/3이나 지하되었고 다른 후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 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성공적이라고 간주되는 우리의 사업에도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지난 10년간의 사업의 성과가 전후반기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어 온것이 아니고 후반기의 실적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채자리결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대도시에서는 젊은층의 출산수준이 상승 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그것은 1950년대의 「베이비붐」으로 인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가임여성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잘못하면 또하나의 「베이비붐」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의 놀라운 성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족계획 요원의 활동을 그 첫째요인으로 꼽고 있다. 계몽활동을 하다 보면 젊은여성의 몸으로 써홍수로 인해 며칠동안 산간벽촌에 갇혀 있어야만 했을 때도 있었고, 완고한 동리 노인들의 눈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으며, 게다가 짓궂은 젊은이들의 악유와 농담을 받아가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편 밤을 새워 동리 부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즐거움도 맛보았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왜 사업이 부진하고 순조롭지 못했는가? 우리사회 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이 기대한만큼 변하지 않은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재원이 모자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연 그것만이 사업부진의 이유일까?

## 가족계획 요원의 어제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의 자세가 어떠하여 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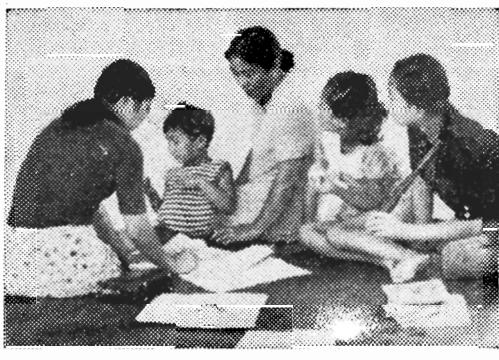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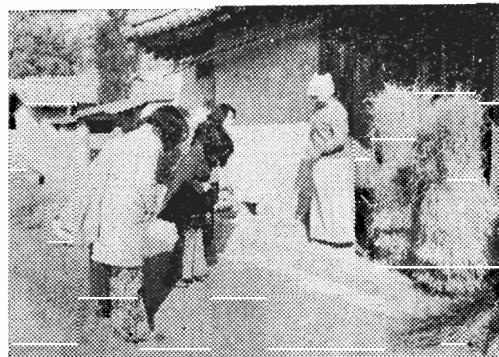
일이 편하고 보수가 좀 나은 곳을 찾아 철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지는 않았는가? 혼을 하거나 외국에 갈 때까지의 시간을 메여 그저 잠시 쉬는 마음으로 이 직업을 택하는 않았던가? 이리저리 줄을 놓아 마음에도는 곳에 배치받기도 하고 항상 다른 곳으로 겨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던가? 차기 편하고 반겨주는 곳만을 찾아나고 멀기나 까다로운 곳은 피해오지 않았던가? 모든 일을 어머니회장에게만 미루고 사 이 부진한 이유가 그들의 협력이 모자란데다고 탓하지 않았는가? 시술병원에 시술비를 제대로 빨리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그들이 불친절하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는가? 항상 새로운 계몽방법과 피임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와같은 모든 점을 반성해 볼때, 후반기 사업 진행의 지체에 대하여 사회의 의식구조만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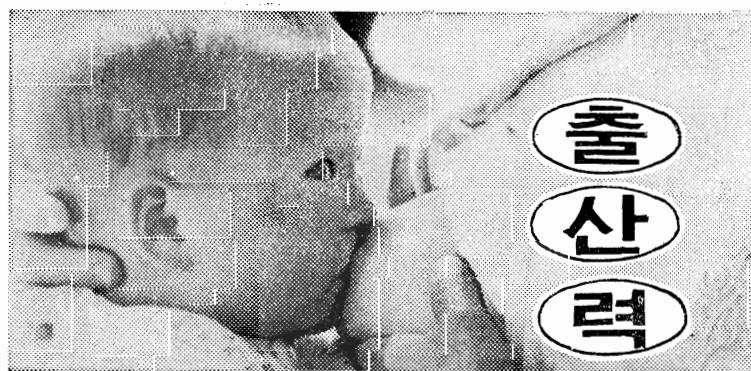
우리는 각기 지역사회 의 가족계획사업에 견념해야 할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다. 사업 부진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업수행을 잘하지 못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 가족계획 요원은 이미 우리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자연히 가족계획 요원 무용론(無用論)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우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음의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진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차를 돋는다.」



부진한 후반기 실적... 스스로의 자세 반성을



가족계획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사적 출산력(出產力)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사업을 하려면 출산수준(出產水準)과 그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력조사(出產力調査)가 필요하다. 여기에 출산율을 측정하는 흐적인 6가지 지수(指數)를 소개한다.

(1) **조출생율**(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1년간의 출생아수와 그해 중간시점(中間時點) 즉 7월 1일 현재 출생인구수의 비(比)를 말하며 보인구 천명당 ○○로 표시된다. 출생수와 출생인구수만 있으면 간편하게 출산할 수 있고 한눈에 출생수준(準)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

### 피임약 복용중의 점상 출혈

**피임약 복용중 점상 출혈(Spotting)**이 있을 때는 1일 복용량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 이렇게 두 알씩 복용을 약 5~7일간 계속하면 대개는 출혈이 멎게 된다.

이러한 증세는 처음 피임약을 복용하는 부인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피임약 한 쌍이를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 증세가 3~4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겁을 떨 정도로 심각한 증세는 아니다.



교원수첩

도 있다. 이때 출생인구에는 남성인구와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인구, 즉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50세 이상의 노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의 추세와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

35~39, 40~44, 45~49세)으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이 방법도 역시 미혼, 미망인 등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인구를 포함한 채로 출산율을 산출하게 된다는 약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4) **연령별 특수결혼율**(年齡別特殊結婚出產率, 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1년간 출생아수와 그 당시 결혼생활중인 여성인구의 비(比)를 말한다.

(5) **합계출산율**(合計出產率, Total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에 연령집단의 간격을 곱한 것으로, 천명의 부인이 일생동안 낳을 수 있는 총자녀수를 말한다.

출산율의 종합측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이 합계출산율은 각년령별부인수를 천명으로 통일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로 각년령별여성인구 구성상의 차이에서 오는 약점을 보완(補完)할 수 있고, 또 완결된 가족

### 산출공식(算出公式)

$$\text{① 조출생율} = \frac{\text{1년간 총 출생아수}}{\text{그해 중간시점의 출생인구}} \times 1000$$

$$\text{② 일별 출산율} = \frac{\text{1년간 출출생아 수}}{\text{그해 중간시점의 15~49세 여성인구}} \times 1000$$

$$\text{③ 연령별 특수출산율}$$

$$= \frac{\text{1년간 연령집단별 여성인구가 낳은 아이 총수}}{\text{그해 중간시점의 연령집단별 여성인구}} \times 1000$$

$$\text{④ 연령별 특수 결혼 출산율}$$

$$= \frac{\text{1년간 연령집단별 결혼생활중인 여성인구가 낳은 아이 총수}}{\text{그해 중간시점의 연령집단별 결혼생활중인 여성인구}} \times 1000$$

$$\text{⑤ 합계 출산율} = \text{연령별 특수출산율의 합계} \times 각 연령집단의 간격 (대개 5)$$

$$\text{⑥ 모아비} = \frac{0~4세 인구}{15~49세 여성인구} \times 1000$$

수(指數)로서 일반출산율이 있다.

(2) **일반출산율**(一般出產率, General Fertility Rate): 1년간의 출생아수와 그해 중간시점(中間時點)의 가임년령층(可姪年齡層, 즉 15~49세)의 출생여성인구의 비(比), 즉 임신할 수 있는 연령층의 여성인구 천명이 1년간 낳은 아기의 총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출산율은 조출생율보다는 정확하지만, 여전히 미흡(未治)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가임년령층(15~49세)의 여성인구집단에서도 각년령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출산수준(出產水準)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15~19세 층이나 45~49세 층의 출산수준은 25~29세 층의 것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연령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고안된 출산력 측정방법이 연령별특수출산율이다.

(3) **연령별특수출산율**(年齡別特殊出產率, Age-Specific Fertility Rate): 가임년령층의 여성인구집단에서 각년령집단별로 천명의 부인이 1년간 낳은 아이의 총수라고 말할 수 있는 테, 이때 연령집단은 보통 5세간격(15~19, 20~24, 25~29, 30~34,

의 평균크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점에서 일반출산율보다 나은 점이 있다.

이상의 모든 출산율은 모두 특정한 연도의 부인수에 관한 자료와 그 부인이 낳은 아이의 수에 관한 자료, 즉 정확한 인구동태통계가 없이는 측정할 수가 없다.

(6) **모아비**(母兒比, Child-Woman Ratio): 인구동태통계가 없이도 국세조사나 연말상주(常住)인구조사의 성별·연령별인구통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아비이다. 이것은 0~4세인구의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에 대한 비(比)를 말한다. 모아비는 출생아수 대신에 0~4세인구, 즉 5년간의 출생아종생산(生殘)해온 아이의 수에 의해서 산출되므로 출생율로서의 의의(意義)는 회박하다. 그러나 자료가 정확하다면 조출생율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정확한 출생의 수준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산출공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탑당지역내의 출산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새로운 「월경조절법」 등장

###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서 시술

「대한가족계획협회」의 14개 부속의원서는 새로운 가족계획 방법으로 월경조절법을 지난 1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예전 월경을 한 번 걸를 경우에 진공흡입기(真空吸入器)를 사용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월경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통경법(通經法)이라고도 불리운다. 따라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라도 6주이내라면 이 진공흡입기로 수정란을 뽑아 낼 수 있는 일종의 초기 인공임신중절법과 같은 것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4개 부속의원의 월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8일과 2월 5일 2차에 걸쳐 이월경조절법 시술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고, 미국제개발처(U S A I D)로부터 지원받은 월경조절기 100개를 14개부속의원에 분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중순 대구에서 열렸던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첫 선을 보인 국산(國產) 제품(製品) 월경조절기(月經調節器)도 의료기상(醫療器商)인 계림상사에서 현재 판매중에 있다.

### 가족계획 신탁적금 신탁은행에서 마련

신탁은행은 「주부클럽연합회」의 「임신안하는 해」 캠페인을 돋기 위해 「가족계획신탁」이라는 새로운 신탁제도를 마련, 지난 2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아기하나 안 낳는 대신, 임신함으로써 드는 돈을 적금하여, 부부의 노후보장(老後保障)을 뒤비한다는 뜻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 적금은 자유목적신탁(自由目的信託)으로 연이율

**농촌 보건요원,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을 위한 「임신 출산 영유아」**

이 책은 레오·엘뢰씨, 에디스·칼트, 이사벨·레밍웨이가 공동으로 저운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newborn—a handbook for rural midwives」의 한글번역판이다.

여성생식기관의 해부 및 생식생리, 임신의 진전 및 분만과 영유아 관리를 풍부한 갑화와 함께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조산원은 물론 간호보조원,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기본지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참고서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역,

18.39%, 3년 만기이다.

### 英國가족계획사업 완전無料실시

영국의 가족계획법이 개정(改訂)되어 모든 피임약제와 기구를 무료(無料)로 공급하게 되었다.

지난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 법(法) 의정부원안(政府原案)을 보면, 의사를 은퇴일에 대한 척방료(處方料)로 20파운드(한화로 약 200원 상당)의료료를 시설반도록 되어있었으나 정액을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이월계 수정(修訂)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의사료의 반발도 없지 않으나, 영국정부는 척방료의 정부 부담제를 그 대책으로 강구하고 현재 검

토중에 있다.

개정법에 따른 가족계획 무료사업으로 가족계획진료소와 병동 중심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마을과장 교육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전국의 군(郡) 새마을 과장을 대상으로 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2일간이며, 6월 11일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된다.

### 74년 가족계획사업 평가

#### 18일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6월 18일에도 「가족계획사업평가회」를 갖는다.

이 평가회의 참석범위는 각 부관을 비롯한 정책입안자 및 정부 계획사업 관계자가 된다.

또한 이날 평가회에 이어 6월 가족계획 교육을 위한 「교육전시회」 개장 될 것이다.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오천혜씨.

### 우리나라 가족계획 계동사업 선구자 오천혜씨에 명예박사 학위

연세대학교는 지난 6월 3일 미국인 구현희, 한국사무소 대표 오천혜(본명 조오자·워스) 씨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오천혜박사는 1954년 내한 (來韓)

오박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빛난 박사학위는 전국의 가족계획 계동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 (從事)하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그 소감을 말했다.

### <자료소개>

서울, 동문사간, 1974. 1. 크라운관, 114면, 1000원>

### 「수태(受胎)조절법」

이 책은 가족계획의 기본적인 교재 (教材)로서,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가족계획연구원 부원장 김용안 (金容完) 박사, 한일병원 윤영선 (尹英善) 박사, 서울의대 이희영 (李熙永)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다.

가족계획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성식생리, 수태조절법 및 인공유산 등 광범위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인신 보건요원은 물론 일반 학생들이나 본사업 (本事業) 관계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0여개의 갑화

와 50여개의 도표가 수록되어 있어 응용을 충분히 뛰어침을 해 주고 있다.

<가족계획연구원, 1974. 3. 4>

관, 291면, 비매품>

### <자료소개>

이 책은 임선요원들이 대인 (眞人) 홍보교육활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달치고 있는 문제들을 풀이해 홍보교육요령서이다.

가족계획의 참뜻과 필요성, 지도의 일부, 그리고 지도요원이 꼭 두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고 간편하게 내용은 내용은 요원들의 개발에 지침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 1974. 4. 4>

관 223면, 비매품>